네트워크 장비업체 "보안시장 잡아라"

외부 침투 효과적 예방 통합솔루션 급부상

전용장비 병행 공급수요처 요구 적극 대응

라우터의 양대 산맥인 시스코시스템즈와 주니퍼네트웍스를 비롯해 엔터라시스네트웍스, 프리콘 등 통합 보안장비를 앞세운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이 보안시장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이 '가가 방어 네트워크'(시스코), '고모페트'(주니퍼), '시큐어 네트웍스'(엔터라시스) 등 외국계 보안전략을 발표하면서 보안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방화벽, 가상사설망(VPN), 침입탐지시스템(IDS) 등 단순 위주의 보안 솔루션에 비해 통합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관리의 용이함 등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외부 침투에 대응할 수 있어 네트워크 보안 시장의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단에 따른 것이다.

또 기업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투자 등 보안분야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역시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의 보안시장 진출을 부추기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의 보안전략은 라우터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보안 모듈을 탑재해 손쉽게 기업에가 보안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통합 보안제품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보안 전용장비를 병행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스코의 경우 자체 기술 개발과 함께 리버베드 등 보안 전문업체 인수를 통해 라우터, 스위치 등 자사의 모든 하드웨어 장비에 방화벽, VPN, IDS, 웹 감지 등 각종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를 모듈 형태로 탑재, 확장이 쉽고 관리가 용이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스코는 이와 함께 인터넷 IPS를 선보이는 등 보안 전용장비 공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주니퍼도 자사의 다양한 라우터 제품군에 방화벽, VPN, 네트워크주소변환(NAT), 암호화, 필터링 등 6가지 보안 기능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고모페트'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면, 최근 인수한 네트워크 보안 전문업체 넷스크린테크놀로지스의 IPS, 방화벽, VPN 등 다양한 솔루션을 병행해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비를 중심으로 한 통합 보안제품의 출현이 오히려 기존 전용 보안장비의 성능 향상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에 보안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의 전체적인 가동을 나눠 주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장비의 성능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통합 보안제품은 아직까지 중소기업에서 자사 등 서비스의 중요도가 낮고 보안 투자가 적은 수요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통합 보안제품의 보안모듈은 같은 기능을 하는 보안 전용장비에 비해 가격적가 크지 않아 통합제품 구입을 통한 초기 투자비 절감에 역시 이점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트워크 장비업체 관계자는 "라우터에 방화벽, VPN, IPS, 웹의 바이러스 등의 보안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해 라우터의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사의 네트워크 상황과 보안정책 등에 따라 통합 보안장비와 보안 전용장비 중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통합 보안장비가 중소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도, 대규모 백본 시장은 앞으로도 전용장비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견기업이나 IDC의 중·하부 구간 등 보안시장을 놓고 전용장비와 통합 보안장비가 치열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다양한 보안기능을 탑재하면서도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보안시장으로 영토 확장을 노리는 네트워크 장비업체들의 현안이자 경쟁력을 가름하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또 전문업체 인수 등을 통해 최신 전용장비를 병행 공급해 수요처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업체간 우열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김동식기자 dskim@itt.co.kr

스위치·IPS연계 공공기관 공략

●라드웨어

라드웨어의 레이어7 스위치

라드웨어코리아(대표 정윤인)는 레이어 4 및 레이어7 스위치를 대표하는 가능한 제품라인에인 스위치 전문업체로, 지난 200 년 전국지사 설립 당시 전략적으로 레이어4의 차기 시장으로 레이어7 스위치를 선택한 이후 국내에서는 레이어7 스위치 선두업체로 자리잡았다.

라드웨어의 레이어7 스위치인 '에쎌리케이션스위치II'는 부하분산 및 리다렉션(Redirection) 등 레이어4 스위치 기능뿐 아니라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 모듈을 탑재해 웹 바이러스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한 자동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 자난해에 80여개 사이트에 공급했으며 올해도 성공해를 자축하고 있다.

라드웨어코리아는 또 공공분야시스템(PS)인 '시큐스프로(SecurePro)'를 올해 IPS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시큐스프로는 기가비트 속도로 비정상 트래픽을 탐지해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IPS 장비로, 전자신문·삼성전자·제일은행 등에 공급해 성능을 인정받았다.

정윤인 지사장은 "최근 지에프사 결과 국내 기업에 IT 관련 담당자 중 절반가 IPS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웹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유해 트래픽 차단 장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더욱 늘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레이어7 스위치 시장이 입지를 기반으로 레이어7 스위치와 IPS가 연계된 제품으로 공공기관과 금융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드웨어코리아는 올 상반기에 기업 및 공공기관·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의 신규 사이트를 확보해 이어 하반기에는 60개 이상의 신규 사이트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스크린' 내세워 시장 다각화

●주니퍼네트웍스

넷스크린 ISG 2000

한국주니퍼네트웍스(대표 강이준)가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은 라우터 제품군에 내장된 네트워크 통합 보안 솔루션인 '고모페트'와 지난 4월 인수한 넷스크린의 전문 보안 제품군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고모페트'의 경우 주니퍼의 E-M-T-J 등 4개의 시리즈의 라우팅 플랫폼 전반을 통해 제공되는 네트워크 통합보안 솔루션으로, 솔루션의 성능 지표를 최소화하면서 고성능 네트워크주소변환(NAT), 방화벽, 트래픽 모니터링 및 분석, 필터링, 레이트 제한, 암호화, VPN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넷스크린 전문보안 제품군에는 통합방화벽, IPSec VPN, SSL VPN, IPS 등 다양한 보안제품군이 포진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신사업자에 적합한 하이엔드 제품 공급에 주력해온 주니퍼네트웍스는 올 들어 '넷스크린 ISG 2000', '넷스크린OUT ADSL', '넷스크린 RA500' 등을 앞세워 신보아에 시장 다각화에 주력하는 등 전략 변화를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 시장에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얻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에 맞는 다양한 넷스크린 보안제품 모델을 출시해 중소기업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통합제품보다는 성능과 안정성 우선의 단일 보안장비를 요구하는 통신사업자나 대기업 시장에서는 '고모페트'와 넷스크린 전문 보안장비들을 결합시킨 종단간(end to end) 토털 보안 솔루션으로 공략하고 있다.

주니퍼는 또 IPS와 SSL VPN을 신시장 반열에 올려 이들 관련하는 기술 및 영업조직을 확충과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고성능 IDS솔루션 보급 주력

●시스코시스템즈

캐틀리스트 6500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대표 김정)의 보안 전략은 시스코의 모든 하드웨어 제품에 통합 네트워크 보안 기능을 내장해 보안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관리하기 쉬운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스코시스템즈는 최근 보안 전략의 일환으로 '가가 방어 네트워크(SDN)'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기가비트 이더넷 등 고대역폭을 지원하는 고성능 침입탐지시스템(IDS), 방화벽 등의 기능이 통합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 보안 솔루션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NAC(Network Admission Control) 솔루션, 분산서비스거부(DDoS) 방지 솔루션인 '시스코 가드' 등의 신규 솔루션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대폭 신제품들을 준비중이다.

시스코는 방어벽 및 사용자 요구별로 다양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수가 보안제품 전문회사보다 3~4배 정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방화벽, VPN, IDS 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켜 이를 다양한 모듈 형태로 개발하고 있으며, 웹 감지를 위해 라우터 및 스위치 전 기종에 '넷플로우(NetFlow)'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감지 기능이 탑재된 장비들는 시스코의 대형 및 중형 라우터 및 스위치인 시스코 캐틀리스트 7500·7600·7200·12000·10000·6500·4500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스코 IDS 4200 과 같은 별도의 IDS 장비와 캐틀리스트 6500 과 같은 스위치 상에서 구현되는 IDS 모듈도 제공하고 있다.

통합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공급

●엔터라시스네트웍스

에트릭스 스위치

엔터라시스네트웍스코리아(대표 안호원)는 지난해 보안시장에 파수한 이후 '시큐어 네트웍스(Secure Network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 네트웍스는 엔터라시스의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로 사용자 접속단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을 담당하며, 네트워크 장비와 관리도구, 클라이언트(Client One) 통합 보안 장비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설계에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 네트워크 관리자에게는 시간 절약, 사용자에게는 가용성을 우선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이미 IPv6에서 가능한 콘텍스트(Context) 기반의 보안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 네트웍스는 이와에 에트릭스 스위치, 트래픽 IDS/IPS 및 넷시큐리티 관리 등을 통합해 구성했다.

이 아키텍처는 별도의 네트워크 보안 제품을 운용해 이미 하나씩 이러는 기존의 관리 방식을 탈피해 장비 자체의 임계치도 아키텍처를 이용해 총합적인 보안기능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전반의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안 뿐 아니라 유·무선 랜까지 통합보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엔터라시스는 앞으로 인터넷 전반 보안의 중요성 및 자사 솔루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네트워크의 보안 위협이 더 차원적일 수 있음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학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통해 국지적 솔루션이 아닌 통합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